

## 복권 발행 제주관광진흥기금 확충

제주도, 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검토  
복권·면세점 수익금 편입 등 통해 기금 확충  
성공적 안착 위해선 정부·국회 협조 뒤따라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개·보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등에 지원되고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관광복권 발행과 면세점 수익금 편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나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내 외국 인카지노 매출액과 출국납부금, 보세판매장 특허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연도별 조성액은 2019년 625억1600만원, 2020년 49억3000만원, 2021년 391억8900만원, 2022년 174억9800만원이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제도 및 특별보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시설 자금은 8년, 운전자금은 6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특별보증은 일회성 융자가 아닌 조건부 추가 지원, 창업기업·성장기업·재진입기업 등 경영환경 구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급리는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고정금리·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효율성 중심 정책사업 우선권 부여와 우수 보조사업자 대상 10%내외 보조금 증액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방침

이다. 현재는 상·하반기 각 1회에 걸쳐 신청·접수를 하고 있으나 수요자 필요시 즉각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신용보증재단 위탁 관리를 검토해 나간다.

아울러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광복권 발행, 면세점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편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4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내 외국인 면세점 수익금 일부(매출액의 1% 안팎)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편입하는 관광진흥기금 확대 조성 방안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에 포함시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다른지역과의 형평성을 강조해 온 정부의 벽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경영위기에 기업이 긴급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상·하반기 지원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기금 수시 지원시 이같은 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정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양 받은후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재원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관광창업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 관광프로젝트 기반 지원 방식 추가 도입 등 민간자본 유입 추진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애기동백의 선홍빛 유혹 13일 평화로 인근 한 골프장 울타리에 만개한 애기동백을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제주4·3기록과 유네스코 기록유산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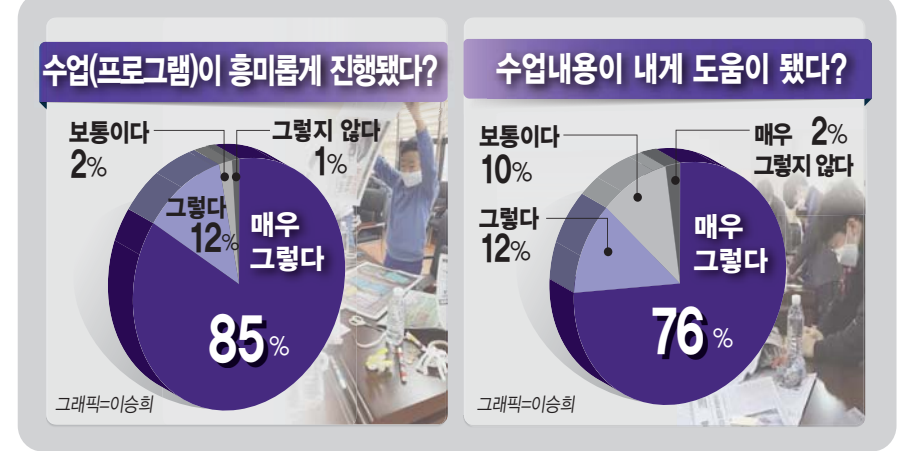
제주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14일 오후 3시부터 제주 호텔도원에서 '제주4·3기록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전문가들의 발표·토론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오후 3시 개회식에 이어 김귀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의장의 '유

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주제 발표로 시작된다. 또 김현승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이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17세기~19세기 한일간 평화구축과 문화교류의 역사'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고대로그기자



### JDC청소년캠프 “흥미롭고 유익”

본보, 캠프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85% “다음에 또 참여”... 97% “수업에 흥미”

한라일보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올해 운영한 'JDC와 함께하는 청소년캠프'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청소년캠프'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매주 일요일 총 4회에 걸쳐 도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캠프에서는 '메타버스 안에서 기자 체험'을 주제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고, 앱을 활용한 인터뷰 장면 촬영 및 녹음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졌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7명의 응답자 중 65명(97%)이 “수업이 흥미롭게 진행됐다(‘매우 그렇다’ 57명(85%), ‘그렇다’ 8명(12%))”고 답했고, 응답자의 85%인 57명은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매우 그렇다’ 52명(78%), ‘그렇다’ 5명(7%))”고 했다.

또 응답자의 99%(66명)가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매우 그렇다’ 81%(54명), ‘그렇다’ 18%(12명))”고 했다. 나머지 1%(1명)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수업 내용이 내게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응답자는 59명(88%)으로 집계됐다. ‘매우 그렇다’가 51명(76%), ‘그렇다’가 8

명(12%), ‘보통이다’가 7명(10%), ‘매우 그렇지 않다’가 1명(2%)이었다.

하루 4시간 진행된 수업 운영 시간이 적당했는지 묻는 질문엔 85%가 “그렇다”고, 1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JDC가 지원하는 청소년캠프 사업이 JDC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만큼 지속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응답자의 94%인 63명이 “청소년캠프를 진행하는 JDC의 노력이 JDC를 알리는데(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매우 그렇다’ 78%(52명), ‘그렇다’ 16%(11명))”고 답했으며, 87%인 58명은 “JDC가 앞으로 청소년캠프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매우 그렇다’ 66%(44명), ‘그렇다’ 21%(14명))”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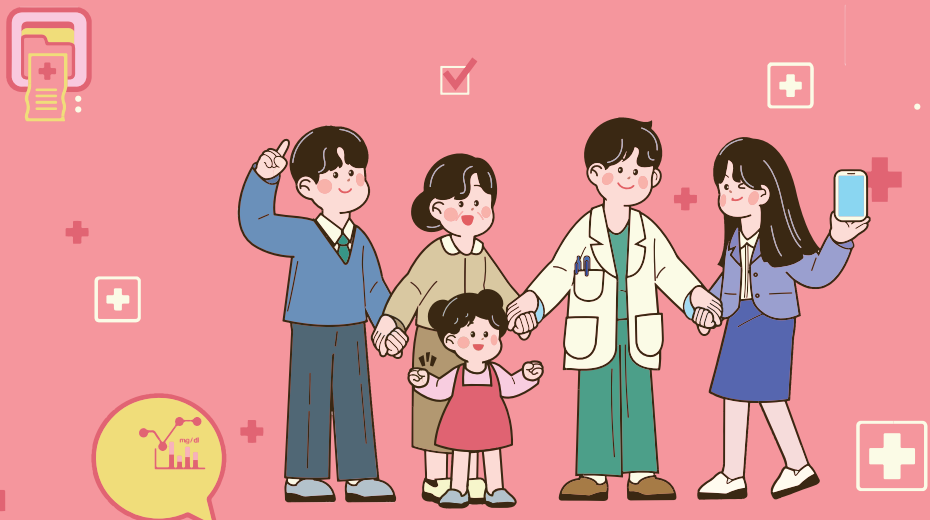
한편 한라일보와 JDC는 지난 2019년부터 'JDC와 함께하는 청소년 캠프'를 통해 청소년의 눈으로

환경·교통·문화 분야 등 제주 현안을 짚어보고, 관심 제고를 위한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654**  
잠정집계 13일 **누적 35만5047**  
<17시 기준>

## 국민 사망원인 1위 암 국가 6대 암 검진으로 예방하세요!



#### 누가 대상인가요?

20살부터 2년에 한번, 누구나 대상이에요!(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 대상)

#### 어떻게 받나요?

건강검진기관 전화상담 및 예약 후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끝!

#### 국가 암 검진항목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이 포함됩니다

#### 어디서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지정된 검진기관 어디서나 가능

#### 서귀포시 국가암검진기관

6대암 검진기관: 서귀포의료원  
5대암 검진기관: 새논의원, 삼성탐내과의원

\* 기타 검진기관 및 연락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_검진기관/병원찾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